

大學教育에 대한 세 가지 提言



啓明大 總長 鄭 吉 秀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發展과 向上은 今世紀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현저한 現象이다. 이러한 현상은 韓國人 特有의 높은 教育熱과 向學熱에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귀중한 資源이며 潛在力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우리의 자원과 잠재력을 보다 效率的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最大의 歷史的 課題일 것이다.

이와 같은 課題를 達成하기 위해 우리의 大學教育에 대하여 몇 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大學教育 機會의 普遍化이다. 즉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機會를 擴大하여야 한다. 최근 社會的인 問題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大學卒業者의 就業難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우리들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大學의 門을 축소시킨다거나 대학교육의 機會를 줄여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대학교육의 量的 膨脹과 아울러 質的 低下가 심각한 문제로 指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대학교육의 內容, 즉 教育課程 運營에 대한 문제이지 대학교육 그 자체의 기회를 축소시키자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므로 效率的인 大學教育을 위해서 우리들이 얼마만큼 努力과 情熱을 쏟느냐에 따라 이 문제의 深刻性도 어느 정도 解消되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몇 차례 이루어진 大學整備라는 劇的 事件들을 계기로 우리는 대학교육의 質的 向上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이와 동시에 대학교육의 質的 向上은 단순히 量的 減縮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經驗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大學의 質的 向上을 내세워 大學教育 機會의 普遍化 政策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로 大學教育의 專門性이다. 대학교육이 高等學校 教育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學問 또는 研究의 專門性에 있다. 특히 대학교육은 國家와 産業의 발전을 위한 社會奉仕의 기능을 원활히 遂行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專門性에 대한 必要性이 더욱 高調될 것으로 본다. 더우기 오늘날의 産業社會에 있어서는 專門化 및 技術革新이 요청됨으로 그러한 大學의 機能의 중요성은 더 한층 加重될 展望이다.

많은 學者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앞으로 國家들은 GNP 중에서 知識産業의 產出額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세기 후반부터 급증할 展望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大學에 대한 社會的 期待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專門的인 知識과 情報의 爆發的 增加 趨勢는 날이 갈수록 加速化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모든 分野에서 外國의 理論이나 知識 및 技術을 導入, 模倣하는 데 급급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모든 與件을 國內의 自體 研究, 開發을 活性化하는 方向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연구, 개발의 活性化는 基礎應用科學技術 분야뿐만 아니라 人文·社會科學 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게 浮刻되고 있다.

大學教育의 專門化는 갈수록 産業構造가 高度化되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 當爲性을 찾을 수 있다. 高度成長을 지상의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經濟는 필연적으로 産業 및 雇傭構造의 고도화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專門性이 높은 人力의 需要가 크게 증대될 것이고, 따라서 産業 社會는 이러한 人力供給을 大學教育에 크게 依存할 것이 明白하다.

세계로 大學教育의 人間化이다. 大學教育에서 지향하는 人間은 결코 로보트처럼 機械的인 동작만을 수행하는 그러한 人間이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判斷 아래 行動하는 自由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그 행동 결과에 따라 責任을 지는 道德的인 人間이다. 풍요한 물질과 고도의 기계 문명 속에서도 人間의 價値와 自我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道德的이며 創造的인 人間像이 대학교육이 目標로 하는 人間像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大學教育이 高度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고, 産業 社會의 전문 분야에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人間教育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人間의 尊嚴性을 외면하거나 歷史意識이 결여되어 중요한 時期에 인간다운 바른 判斷을 할 수 없는 卒業生들을 배출한다면 바람직한 教育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마치 벌이 꿀을 만들어 내듯이 人間의 實生活은 완전히 經濟적인 價値와 기계적인 動作 속에서 오직 生産만 하는 機械 또는 動物과 같은 자리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大學教育의 專門化 및 細分化에 대한 지나친 주장은 人間의 生活을 非人間化하는 愚를 범하기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教育은 專門化와 人間化라고 하는 兩側面을 相互補完하는 全人的인 教育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